

# 도시 주부가 인지한 가계의 재정문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Financial Problem of Family Perceived by Housewife in Urban Areas

숙명여대 가정관리학과  
교 수 이 정 우  
숙명여대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정 진 희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Professor : Jeong Woo Lee*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

*Doctoral Course : Jin Hee Jeong*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문헌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ructure finance management education programme and to provide basic data orienting finance service system by means of analyzing the level of financial problem and its influential variables.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this study:

First, the level of financial problem perceived by housewife in urban areas is in the following order ; property which is perceived the most, income, old age and urgent money, expenditure, and debt which is perceived the least.

Second, the level of financial problem perceived by housewife in urban areas is dependant on housewife age, husband education level, husband occupation, the degree of property, the degree of debts, tendency of fortune control, tendency of materialism, feeling of appropriate resources. It is especially noting that housewife in forties shows high level of financial problem recognition than housewife in twenties does. This indicates needs for middle-aged home management in which

happens house moving to larger size, education of children, marriage of children, preparation for stabilization basis after children's marriage, and shortage of surplus money.

Third, variables which affect all sub-areas are family property sum, tendency of materialism, feeling of appropriate resources. The less family property sum, the stronger tendency of materialism, and the more perceive feeling of appropriate resources, the more perceive they financial problems.

## 1. 서 론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가계는 환경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물가변동, 실업, 이자율 등의 사회적 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소득자의 사고, 사망, 불구, 질병 등의 개인적 위험에도 자주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가계의 개개인들은 때로 자신의 절대소득 수준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수준의 증대욕구 때문에 재정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생활주기 각 단계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는데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 환경속에서 가계가 직면하는 재정문제는 소득에 대한 수요가 화폐공급을 초과하였을 때 발생하며, 예기치 못한 현금이 필요하여 갑자기 지출이 생길 때, 자녀교육, 주택마련 등 미래욕구나 예상했던 요구에 의해 비교적 큰 재정지출이 생길 때 일어날 수 있다(임정빈·고보선, 1992).

이러한 재정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가계는 보험과 저축 등으로 경제적 준비를 하고, 가계의 소비지출을 줄이거나 다른 적절한 대안적 자원을 이용한다. 즉 가계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 가계의 관리자인 주부는 제한된 경제적 자원으로 가족들의 욕구를 최대한으로 만족시키고 가계에 문제가 되는 위험을 줄이려는 행동과정인 재정관리를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경제불황기에는 투자나 신용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며, 이를 도와주고 해결해주는 제도나 기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된다. 또한 재정적 불안정과 재정문제를 경험하는 개인 및 가계도 자신의 경제적 의사결정과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많은 정보와 기술을 원하게 된다. 이처럼 개

인 및 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재무상담서비스체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가계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관리행동이 요구되며, 재무상담서비스체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가계가 실제로 경험하는 재정문제는 어떤 것이며, 또 그 재정문제들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가계재정에 관한 연구를 보면, 주부가 인지한 가정 내 재정상태나 재정문제에 관한 연구(김민정, 1984; 이인숙, 1984; 윤정혜, 1986; 정선희, 1987)가 몇 편 있고, 가정생활만족도의 일부분으로 재정문제를 다루고 있거나(김경숙, 1993), 재정상태나 재정관리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김순미, 1993), 가계재정관리 유형에 따른 재정문제와 그 대처방안(박선옥, 1996)에 관한 연구가 있을 뿐, '가계의 재정문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속에서 가계를 담당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소득·지출·자산·부채·노후 및 긴급자금의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주부들이 가계의 재정문제를 잘 관리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재무관리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개인이나 가계 스스로 당면한 재정적인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 주는 재무서비스 즉 가계 재무 상담 및 재무계획의 방향 설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둔다.

## II. 문헌고찰

### 1. 가계 재정문제의 개념

일반적으로 개인 및 가계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재정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가계가 가족원의 요구에 민감하게 변화하고 반응할 수 있는 자원, 즉 시간, 에너지 및 화폐 등이 부족한 문제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이러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재무관리 방법에 관한 문제이다(Varcoe, 1990 : 58; 김순미, 1993 : 90-91에서 재인용).

대부분의 가계는 현재 욕구 또는 욕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새로운 욕구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생활의 안락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에너지, 화폐, 시간 등과 같은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홍향숙, 1989). 결국 가계가 경험하는 재정문제는 한정된 경제적 자원으로 현재의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요구와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요구 및 미래의 재정적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요구 등을 실현시키고, 가족의 욕구를 최대한으로 만족시키고자 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개인 및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측정목적에 따라 적절한 측정지표를 사용해야 한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는 소득으로 가계의 재정적 안정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지출도 임시적 요인이 있는 현재소득보다는 항상소득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가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또한 자산이나 부채는 소득과 지출에 비해 보다 장기적이고 세부적인 재정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이나 가계의 재정상태를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로 사용된다(문숙재·김순미, 1997에서 재인용). 최근에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자녀나 친척에게 경제적 의존을 하게 되면서 재정적 어려움(민재성 외, 1993)을 경험하는 노인 가계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노인의 재정적 자립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였으며 재

무계획 및 은퇴계획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임정빈·손선경, 1985; 김순미·양정선, 1994; 문숙재·김순미·김연정, 1996; 문숙재·김순미, 1997), 재무계획 및 은퇴계획이 재정상태를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로 등장하였다.

### 2. 영역별로 본 가계의 재정문제

#### 1) 소득문제

현대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가계가 경제적 자원을 획득하는 일차적 방법은 직업을 통하여 소득을 얻는 것이다. 가계는 노동력을 생산하고 그 노동력을 통해 획득한 소득으로 소비를 하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저축이나 투자 등으로 부를 축적하여 생활의 안정을 추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가계의 중요한 역할은 직업을 통한 화폐소득 증대 및 가계생산을 통한 실질소득 증대 등을 위한 노력과 합리적인 가계 관리에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가계소득은 가정에서의 경제 생활 영위를 위한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서병숙·소연경, 1992 : 25).

소득의 개념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 소득을 화폐소득에만 국한시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 만족감까지 포함하여 이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계소득이란 일정기간 내에 가계로 유입되어 가계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화폐가치의 총량을 말한다. 소득은 ① 가족의 정신적·육체적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는 소득인 근로소득 ② 화폐·토지·건물 등의 재화를 생산자본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재산소득 ③ 자연·자본·노동의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기업가가 생산활동을 통해서 얻는 사업소득 등으로 분류한다.

Fitzsimmons와 Williams(1973)는 가장의 사망, 무능력, 실직, 직업전환, 질병에 의해 가정의 소득이 중단되거나 크게 줄었을 때 가계의 재정문제가 일어난다고 하였고, Varcoe(1990)의 연구에서는 가계의 재정적 사건을 직업관련 사건(은퇴·실직·직업바꿈), 건강관련사건(심장병·질병·사고·소득원의 죽음) 그리고 가족관련사건(이혼·자녀출산·자녀 대학교

육)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직업관련 사건을 가장 빈번히 경험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체제이후 정리하고, 대량 실업 등으로 대부분의 가계는 가정 밖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얻는 화폐소득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 2) 지출문제

가계의 지출행동은 가계가 생활주기별로 갖게 되는 다양한 재정적 요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각 가정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소유한 경제적 자원의 종류와 내용 및 양이 다를 것이며, 또한 가족의 생활목표에 따라 경제적 자원의 사용유형과 방법도 달라질 것이다.

가계가 합리적인 지출을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은 각 지출비목에 대한 긴요도이다. 그러므로 한정된 소득의 경우 긴요도가 높은 것에 우선적으로 지출 배분을 해야 하고 긴요도가 낮은 비목을 조절함으로써 지출의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기춘, 1985 : 76-77).

IMF체제이후 불안정한 소득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도시 가계는 배달되는 우유나 신문을 끊고 외식비·문화비·자녀교육비 등을 줄이는 등 지출문제의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 3) 자산문제

가계의 미래는 현재의 가계소득과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는가에 의해서 크게 달라진다. 즉 소득이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가계의 안정과 향상을 얻고 가족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산관리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산관리의 평가기준이 되는 개념은 수익성과 안전성, 그리고 환금성(유동성)이다. 수익성은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남기면서 자산을 증식시키는가의 문제이고, 안전성은 자산을 잃어버릴 염려없이 얼마나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가의 문제이며, 환금성은 현금이 필요할 때 얼마나 손쉽게 자산을 처분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 4) 부채문제

가계의 경제적 행동은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 포트폴리오에 기초하여 매우 다양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 가계의 소득이 증가할 때, 부채가 없는 가계는 자산을 축적할 수 있으며, 부채가 있는 가계는 현재의 부채를 감소시키는 대신 새로운 자산을 축적하기도 한다. 가계가 특정자산을 획득하기 위해 부채를 보유하고, 이러한 부채보유가 바로 특정 유형의 자산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자산과 부채간의 상호의존성을 암시하는 것이다(Bryant, 1986; 문숙재·김순미·양정선, 1996 재인용). Herendeen(1974)은 부채는 일생에 걸쳐 가계소득을 재분배함에 있어 수단이 되며 그럼으로써 가계는 소비의 총효용을 극대화한다고 했다. 실제로 부채의 이용은 가계의 현재 구매력을 증가시킴으로써 가계 생활표준으로서의 접근을 더 용이케 하는 동시에 생활주기의 어느 단계에서 또는 가계소득의 감소나 실업 등과 같은 특정 상황하의 경제적 곤궁에서 일정수준의 생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계소비의 총효용을 증가시키는데 기여 할 수가 있다.

부채를 보유하는 가계 중에는 자신의 지불능력을 넘는 극박한 상황도 있으나 보편적으로 자신의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동시에 근로소득 외의 자산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얻고자 하는 투자성 부채를 보유하기도 한다. 이처럼 부채가 자산 증가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나, 생애 주기에 걸쳐 가계의 자산과 부채 포트폴리오에 극복할 수 없는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거나 부채액을 기초로 한 투자의 수익률이 기대수익률에 못 미치게 될 때, 가계는 재정적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문숙재·김순미·양정선·1996 : 158).

결국 부채의 부담은 원금·이자의 상환과 함께 가계 가용자금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가계의 소비패턴에 영향을 미치며(심영, 1993), 가계저축에도 제약을 주게 되고(Hayes, 1987), 지나친 부채 부담은 가계에 경제적 손실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부채문제는 가계가 경험하는 재정문제의 하위영역으로서 중요하다.

### 5) 노후·긴급자금 문제

불확실한 미래의 재정적 자립을 위한 전략은 매우 중요한 목표이지만 노후 준비를 위하여 가계의 재무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업과 같은 긴급한 일 등에 대비한 재무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노후나 실직 등에 대비한 가계의 재무계획은 현재의 재정상태를 유지하거나 개선하고, 은퇴기에 직면할 재정적 문제나 위기를 예방하며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노후생활자금은 퇴직예상연령과 평균수명을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후생활비의 주된 원천은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긴급예비자금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며, 이러한 긴급예비자금의 일정한 비율은 쉽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형태로 갖고 있어야 한다.

근래 우리 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인구 중 55세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1980년의 9.1%에서 1985년의 9.9%, 1994년에는 13% 등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므로(통계청, 1995) 노후생활자금에 대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IMF시대를 맞아 해고와 대량실업, 경비절감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자금에 대한 문제도 어느 때 보다 그 중요성을 더해 갈 것이다.

### 3. 가계의 재정문제에 관한 선행연구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가계의 재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개별 가계에서 나타나는 재정문제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계의 재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계의 생활주기를 들 수 있다. 생애소득가설(Ando & Modigliani, 1963; 박선옥, 1996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소비자는 일생에 걸친 총소득, 즉 생애소득(lifetime income)에 근거하여 소비 행위를 한다. 개인의 소비는 예상되는 총기대소득(생애소득)의 현재 가치에 대한 일정 비율로 나타나며 따라서 개인은

전 생애 기간에 걸쳐 균등한 소비수준을 유지한다. 여기서 차입은 현재소득이 평균 생애소득의 현재 가치에 미치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등한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원을 재분배하는 수단이 된다. 가정생활주기면에서 볼 때 소득의 흐름은 일반적으로 초년기·노년기에는 낮은 반면 중·장년기에는 높으므로 초년기에는 차입을, 그리고 중·장년기에는 초년기에 빌렸던 부채의 상환과 노년기에 대비한 저축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계는 일생에 걸쳐 소비수준을 안정화하여 총효용을 극대화하지만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소득과 지출의 불균형이 생겨서 재정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서 위험은 경제적 것과 개인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경제적 위험은 개인적인 통제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물가의 변동, 실업, 이자율의 변동과 같은 일반적인 상황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며, 개인적 위험은 소득자의 사고, 사망, 불구가 되는 위험 등으로 일반 경제상황과 별도로 개개인이 처하는 위험이다. 이러한 위험이 가계에 직접 간접영향을 미치게 되어 가계는 재정문제를 경험하게 된다(정성희, 1987).

이기춘(1991)은 가계의 재정적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실업, 특히 가장의 실업과 인플레이션, 소득의 부족과 수지불균형 및 각종 사건을 들고 있다. 특히 요즘은 IMF 시대로 인한 정리해고, 대량실업, 취업률 저조 등으로 개별 가계는 더욱 더 심각한 재정문제를 겪고 있다.

물가의 상승은 가계 외부 환경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황덕순(1995)은 완만한 물가 상승은 경제를 활성화시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갖지만, 물가의 상승은 동시에 소득의 증가분을 상쇄하거나 실질소득의 감소를 가져옴으로서 가계의 재정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가계의 재정문제를 유발시키는 개인적·경제적 외 부환경 외에 또한 개별 가계가 재정문제에 직면하는 원인 중의 하나는 자원관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불충분한 소득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재정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현명하게 사용하지 못하는데 기인하는 경우가 많

다(Fitzsimmons & F.williams 1973; Wright 1978; 정선희·오정옥, 1991에서 재인용). 양경아(1992)의 연구에서도 주부의 가정관리 능력이 높을수록 가정 경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비합리적인 소비행위도 가계의 재정문제를 유발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매일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지출 및 저축의 결정은 적은 금액일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습관적 지출, 충동적 행위가 나타날 수도 있고, 생활수준이 높은 준거 집단의 영향으로 잘 사는 이웃을 따라 가기 위해서 자신의 재정상태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소비지출을 함으로써 재정문제가 유발되기도 한다(김영숙, 1983). 그의 장기적 목표의 부재, 소득이나 생활비의 비현실적인 평가, 미래의 기회비용에 대한 인내심의 부족, 급격한 경제 상황의 변화 등이 재정문제의 원인일 수도 있다.

가계의 재정문제 영역은 연구자마다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김민정(1984)은 가계소득적정도 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경제문제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문제인 식료품비, 광열비, 주거비, 자녀교육비, 보건위생비, 공과금과 새 옷·구두·큰 돈 마련, 가정용품, 여가 및 취미생활, 저축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 가장 자주 경험하는 재정문제는 여가 및 취미생활을 할 여유와 저축을 할 여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선희(1987)는 재정문제를 각 개인이 재정관리와 소비 지출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정도의 심각도로 정의하고, 예산관리 문제, 금전관리 문제, 저축관리 문제, 투자관리 문제, 조세관리 문제, 부채관리 문제, 소비지출 문제 등 7개 하위 영역으로 재정문제를 나누었다. 연구 결과 7개의 하위영역 중에서 주부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재정문제는 투자관리, 예산관리, 세금관리 문제로 나타났다.

Varcoe(1990)는 가계의 재정사건과 대처전략연구에서 재정적 사건으로 직업관련문제(실업, 은퇴, 이직), 가족관련문제(자녀의 출생, 자녀의 대학 진학 등), 건강관련문제(심각한 병, 사고, 가구주의 사망 등)를 제시했다.

이종혜(1993)는 가계에서 발생하는 재정문제들을 건강문제, 주택확장문제, 노후대비, 직업문제, 주택문

제, 등록금, 과외비, 결혼자금, 여가비용, 부채부담, 생활비 부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는데 그 우선 순위는 건강문제, 주택확장문제, 노후 대비의 순으로 나타났다.

황덕순(1995)은 경제적 불안이란 가계 내·외의 사건과 자극에 의하여 경제적 안정이 위협 당하는 상태라고 정의하면서 경제적 불안을 물가불안, 소득불안, 고용불안, 재정불안, 상대적 박탈 등의 5개 하위 영역으로 나누었고, 이러한 경제적 불안이 나타나는 영역에서 물가문제·소득문제·고용문제·재정문제·상대적 박탈의 문제가 도출된다고 하였다.

박선옥(1996)은 가계의 재정문제를 의료비 발생문제, 자녀에 따른 재정문제, 가정기기 및 자동차 수리나 교체로 인한 재정문제, 과도한 세금·보험료·벌금의 발생문제, 과도한 구매·취미활동비 등의 과도한 지출문제, 천재지변·인플레이션·주가하락 등으로 인한 재정문제, 자동차구입 등에 따른 재정문제, 보증으로 인한 손해, 계가 깨지는 등으로 인한 재정문제, 가구주의 죽음·은퇴·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재정문제, 부모부양비·과도한 부조비로 인한 재정문제·임대료 문제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의료비 문제가 가계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재정문제로 나타났다. 이는 오늘날 경제적·문화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현대인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했을 뿐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 변화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로의 누적과 스트레스로 가족들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건강이 가계의 소득원을 획득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인적 자원 요소로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첫째, 도시 주부가 인지한 전체적인 가계의 재정 문제인지도는 어느 정도이며, 하위영역별 문항별 가계의 재정문제인지도는 어느 정도인가?

둘째, 객관적인 변인과 주관적인 변인에 따라 가

계의 재정문제인지도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도시 주부가 인지한 가계의 재정문제인지도 및 각 하위 영역별 재정문제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은 무엇인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객관적 변인으로 주부의 연령, 주부의 취업여부, 남편의 학력, 남편의 직업, 가계총자산액, 가계총부채액을 사용하였으며, 주관적 변인으로는 주부의 운명통제지향성, 물질주의성향, 자원적정감을 선정하였다.

## 2. 조사도구

### 1) 가계의 재정문제 인지도

가계의 재정문제인지도의 조사도구는 본 연구자가 현재 가계의 재정상태의 하위영역에 대해 평소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노후·긴급자금의 5개 하위영역 총 10문항을 구성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재정문제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 $\alpha = .89$ )

### 2) 물질주의성향

물질주의란 인간의 행복이나 불행은 물질에 의해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 또는 물질을 중시하는 성향을 물질주의성향이라고 본다. 물질주의 성향척도는 송인숙(1993), 백경미(1995), 이명숙(1995)의 연구를 기초로 만들었으며, 총 7문항이고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물질주의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alpha = .60$ )

### 3) 운명통제지향성

한 개인이 자신과 자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운명론적 가치성향과 통제론적 가치성향으로 구분하고, 이 두 가치성향 개념은 연속선상의 양극단에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위치한다고 가정한다. 이 척도는 선행연구(이정우, 1980; 임정, 1988; 이명숙, 1995)를 기초한 총 6문항 ( $\alpha = .62$ )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운명통제적인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4) 자원적정감

자원적정감이란 가정생활에서 주부가 평소 이들 자원의 적정성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로 자원의 내용으로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자원적정감 척도는 Rowland와 동료들(1985), 이명숙(1987), 김경숙(1993)의 연구를 기초한 6문항 ( $\alpha = .68$ )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부의 자원적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 3. 조사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령, 교육수준 및 직업 등에 따라 유의적 표본 추출을 하였다. 1998년 4월 6일부터 30일 까지 800부를 배부하였으며, 부실 기재된 자료를 제외한 535부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PC SAS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재정문제인지도를 알기 위해 단순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고, 배경변인에 따른 재정문제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재정문제인지도에 대한 각 변인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회귀모형에 사용된 변인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Pearson's 상관계수는 .05수준 미만이었으며, VIF값도 10미만으로 나타났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와 같다. 주부의 연령은 30대가 37.2%, 40대가 35.5%이었으며, 주부의 취업여부는 전업주부가 47.5%, 취업주부가 52.5%로 취업주부가 약간 더 많았고, 남편의 학력은 전문대졸·대학교졸이 60.6%로 가장 많았으며, 남편 직업은 전문직과 사무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535)

범주변인	구분	빈도(%)	범주변인	구분	빈도(%)
주부 연령	20대	100(18.7)	남편 학력	고등학교졸이하	143(7.2)
	30대	199(37.2)		대학교졸업	304(60.6)
	40대	190(35.5)		(전문대졸포함)	
	50대이상	46(8.6)		대학원졸 이상	55(11.0)
주부 취업 여부	전업주부	254(47.5)	남편 직업	전문·관리직	185(7.2)
	취업주부	281(52.5)		사무직	218(43.9)
				생산서비스직	89(17.9)
		무직 및 은퇴		5(1.0)	
자산 유무	유	450(84.1)	부채 유무	유	321(60.0)
	무	85(15.9)		무	214(40.0)

연속변인	75%	50%	25%	Mean	S.D
물질주의성향(점)	3.14	2.86	2.43	2.77	0.67
운명통제지향성(점)	4.33	3.83	3.33	3.82	0.69
자원적정감(점)	3.66	3.17	2.83	3.20	0.68
가계총자산액(만원)	22000	10000	3200	19670.61	34946.56
가계총부채액(만원)	2900	1100	200	2855.062	8338.193

\* 결측값으로 인해 빈도의 총합에 차이가 있음

한편 조사대상 가계의 가계총자산액은 평균 19670만원 정도였고, 가계총부채액은 평균 2855만원이었다. 주부는 보통 보다 약간 낮은 물질주의성향을 지녔으며, 운명통제지향성은 평균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자원적정감은 평균보다 약간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 2. 도시 주부의 가계의 재정문제인지도

도시 주부의 가계의 재정문제인지도는 평균 2.44에서 2.97까지 분포하였고, 전체재정문제인지도수준은 2.81점으로 나타났다. 〈표 2〉에 의하면 가계의 재정문제 영역 중 문제인지의 정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자산문제이며, 그 다음이 소득문제, 노후·긴급자금문제, 지출문제 순으로 낮아졌으며, 부채문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부들이 가계의 재정문제 중에서 투자관리를 가장 어려운 문제로 인지

하고, 부채관리 문제를 가장 쉽게 인지한다는 정선희(1987)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부채는 현재의 구매력을 증가시킴으로써 특정 상황에서 일정 생활수준의 영위를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가계의 장기적 재정계획수립 및 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성영애·양세정, 1995)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한 부채는 부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즉 생애주기에 걸쳐 가계의 자산과 부채 포트폴리오에 극복할 수 없는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될 때 가계는 심각한 재정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 주부들이 가계의 재정문제 중에서 부채문제를 가장 낮게 인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부채문제도 심각한 재정문제로 인지할 가능성이 많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결과에 더하여 문항별로 재정문제인지도를 파악한 〈표 3〉에 의하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문제는 자산문제 중 “재산증식 목표액의 달성정도”로 나타났고 역시 부채문제인 “부



〈표 2〉 하위 영역별 가계의 재정문제인지도

변 인	하위영역	빈도	평균	표준편차
재정문제인지도	소득문제	531	2.89	0.84
	지출문제	500	2.84	0.72
	자산문제	517	2.97	0.97
	부채문제	505	2.44	1.02
	노후·긴급자금문제	505	2.88	0.87
	전체	500	2.81	0.66

〈표 3〉 도시주부의 문항별 재정문제인지도

하위영역	문 항	평균	표준편차
소득문제	가계의 월평균 총소득액	2.86	0.84
지출문제	필요한 생활용품구매	2.73	0.77
	자녀의 교육비(등록금,특기교육비,과외비 등)지출	2.85	0.96
	한달 생활비의 예산초과	2.92	0.93
자산문제	자산증식방법(저축,보험,투자,부동산구입 등)	2.88	0.82
	재산증식 목표액의 달성정도	3.05	0.85
부채문제	부채 해결 능력	2.43	1.05
	부채액(빚)의 부담	2.45	1.11
노후·긴급 자금문제	노후생활안정자금	2.83	0.93
	긴급자금(실직,사고,병 등으로 인한)	2.93	1.00

채액(빚)의 부담” 및 “부채해결능력”을 가장 낮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노후·긴급자금 문제영역에서는 “노후생활안정자금” 보다 “긴급자금(실직, 사고, 병 등으로 인한)”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나라 경제가 IMF 관리체제이후 대량 실업으로 인해 고용불안이 증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 3. 객관적·주관적 변인에 따른 가계의 재정문제 인지도의 차이〈표 4〉

#### 1) 객관적 변인

주부의 연령에 따른 가계의 재정문제인지도는 자산문제, 부채문제, 전체재정문제인지도 등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DMR 검증결과 20대 주부가 50

대 주부보다 자산문제와 부채문제의 인지 정도가 낮았다. 이는 20대의 경우 가정생활주기상 형성기에 속하거나 취학 전 자녀를 둔 시기로서 이 시기는 가계의 경제적 목표를 수립하고 효율적인 가계지출을 위한 시기이므로 20대 주부는 재정문제 중 자산 및 부채문제의 인지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계의 전체 재정문제인지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부의 취업과 재정문제에 대한 관련 연구에서는 상반된 두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한 연구에서는 주부의 취업이 가계소득에 기여하기 때문에 취업한 주부가 재정문제를 덜 경험한다는 것이고(Williams & Berry, 1984), 다른 한 연구에서는 주부의 취업이 주로 가계의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루어지므로 취업주부의 가계가 재정문제를 더 경험한다는 것이다(이종혜, 1993). 본

〈표 4〉 객관적·주관적 변인에 따른 가계의 재정문제인지도의 차이

독립변인		종속변인		소득문제		지출문제		자산문제		부채문제		노후·긴급 자금문제		전체	
		구분	빈도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주부 연령	20대	100	2.87		2.66		2.81	C	2.09	B	2.77		2.62	B	
	30대	199	2.87		2.83		2.92	BC	2.52	A	2.90		2.79	AB	
	40대	190	2.87		2.91		3.07	BA	2.50	A	2.90		2.87	A	
	50대이상	46	3.00		2.90		3.14	A	2.63	A	3.01		2.97	A	
	F-value			0.32		2.32		3.96**		4.95**		0.91		3.16*	
주부 취업 여부	취업주부	281	2.92		2.87		2.97		2.53		2.93		2.86		
	전업주부	254	2.85		2.82		2.97		2.34		2.83		2.76		
	t값			-0.91		-0.83		-0.06		-2.02*		-1.29		-1.05	
남편 학력	고졸이하	143	3.00	A	3.03	A	3.08	A	2.46		2.96	A	2.93	A	
	대학교졸	304	2.88	A	2.80	B	2.94	A	2.45		2.89	A	2.79	A	
	대학원졸이상	55	2.47	B	2.50	C	2.74	B	2.21		2.55	B	2.46	B	
	F-value			8.14***		10.99***		4.35***		1.36		4.25*		8.00***	
남편 직업	전문관리직	185	2.71	B	2.68	A	2.85	A	2.38		2.76		2.66	A	
	사무직	218	2.92	BA	2.89	A	2.97	A	2.40		2.92		2.82	A	
	생산서비스직	89	3.06	BA	2.98	A	3.16	A	2.63		3.00		3.00	A	
	무직 및 은퇴	5	3.40	A	3.07	A	3.30	A	2.60		3.10		3.06	A	
	F-value			4.91**		4.42**		4.14**		1.31		1.86		5.01**	
자산 유무	유	450	2.84		2.95		3.07		2.43		2.87		2.78		
	무	85	3.13		3.07		2.95		2.48		2.95		2.96		
	t값			2.94**		1.29		1.30		0.37		0.67		1.98*	
부채 유무	유	321	2.95		2.90		3.06		2.64		2.98		2.91		
	무	214	2.79		2.75		2.84		2.12		2.73		2.64		
	t값			-2.19*		-2.31*		-3.27**		-5.76***		-3.27**		-4.14***	
운명 통제 지향성	상집단	285	2.77		2.72		2.89		2.24		2.76		2.67		
	하집단	250	3.01		2.97		3.06		2.67		3.02		2.95		
	t값			3.30***		3.81***		2.71**		4.87***		3.41***		4.64***	
물질 주의 성향	상집단	264	3.01		2.98		3.04		2.56		3.00		2.92		
	하집단	271	2.75		2.62		2.90		2.31		2.76		2.69		
	t값			-3.62***		-4.56***		-2.16*		-2.66**		-3.02**		-3.62***	
자원 걱정감	상집단	237	2.52		2.55		2.73		2.13		2.61		2.52		
	하집단	298	3.02		3.06		3.16		2.69		3.10		3.02		
	t값			8.65***		8.22***		6.96***		6.29***		6.68***		8.65***	

\* p&lt;.05 \*\*p&lt;.01 \*\*\* p&lt;.001 #상집단과 하집단은 각각의 평균을 기준으로 함

연구 결과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른 가계의 재정문제 인지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주부의 직업을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두 집단으로만 나누었고, 주부의 취업동기 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

문으로 사료된다.

남편의 학력에 따른 가계의 재정문제인지도는 전체 재정문제인지도와 부채문제를 제외한 전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편의 학력이 고졸

이하의 집단이 대학원졸 이상의 집단보다 재정문제 인지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남편의 직업에 따른 가계의 재정문제인지도는 전체 재정문제인지도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하위 영역 중에서는 소득문제, 지출문제, 자산문제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DMR 검증결과 전문관리직 집단보다 무직 및 은퇴집단이 소득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재정적 사건에 가장 장애적이었던 요인은 실직 등의 사건으로 직업과 가정경제는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Varcoe(1990; 61)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무직 및 은퇴집단이 소득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결과를 통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사회에서도 노후에 대한 재정 계획 및 이를 위한 제도적 준비와 장치가 매우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자산유무에 따른 가계의 재정문제인지도는 소득문제와 전체 재정문제인지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산이 없는 집단이 자산이 있는 집단보다 소득문제의 인지 정도가 높았으며, 전체 재정문제인지 정도도 높았다.

부채유무에 따른 가계의 재정문제인지도는 전체 재정문제인지도와 5개 각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부채가 있는 집단이 부채가 없는 집단보다 소득문제, 지출문제, 자산문제, 부채문제, 노후·긴급자금문제, 전체 재정문제를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부채유무와 재정문제 인지정도간에는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정선희(1987; 4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 주부들은 합리적이고 신중한 부채사용의 선택을 필요로 하며, 합리적인 부채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해 준다.

## 2) 주관적 변인

운명통제지향성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가계의 전체 재정문제와 각 하위영역별 재정문제를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운명통제지향성이 높은 주부들은 재정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주어진 환경을 자신이나 가계에 유리하도록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물질주의성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전체 가계의 재정문제와 각 하위영역별 재정문제를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물질주의 가치를 더 지향하는 주부일수록 가계복지를 더 낮게 인지한다는 임정(1989)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자원적정감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소득문제, 지출문제, 자산문제, 부채문제, 노후·긴급자금문제, 전체 재정문제의 인지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자원에 대한 적정성을 높게 인지할수록 재정문제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김경숙(1993)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가정의 목표, 문제, 사건 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는 인적·경제적·환경적 자원의 적정성 정도를 주부가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재정문제의 인지 정도가 달라짐을 시사하고 있다.

## 4. 가계의 재정문제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1) 전체 가계의 재정문제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주부들의 전체 가계의 재정문제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전체 가계의 재정문제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부의 연령 중 40대( $\beta=.36$ ), 자원적정감( $\beta=-.33$ ), 주부의 연령 중 30대( $\beta=.25$ ), 물질주의성향( $\beta=.24$ ), 가계총자산액( $\beta=-.20$ ), 남편의 직업 중 사무직( $\beta=.15$ ), 가계총부채액( $\beta=.14$ )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 변인들의 재정문제인지도에 대한 설명력은 41%였다.

객관적인 변인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친 주부연령의 경우 40대의 주부가 20대의 주부보다 재정문제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40대 주부의 경우 중년기 가계에 해당되며, 중년기 가계는 일반적인 생활자금과 예비자금 외에도 주택확장과 자녀 교육 및 결혼 그리고 노후준비 등 다른 생활주기보다 훨씬 다양한 재정적 요구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남편직업이 사무직인 경우가 전문·관리직인 경우보다 재정문제인지

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IMF 시대를 맞아 각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해고와 대량실업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기업의 대량 퇴출로 인해 남편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실직으로 인해 가계가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주관적인 변인 중에서는 자원적정감이 높을수록 가계의 재정문제인지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주부들이 여러 가지 자원의 적정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 효율적인 재무관리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물질주의성향이 높을수록 가계의 재정문제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재화의 소유나 소비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려는 물질주의의 가치관은 개인의 재정만족도를 낮게 한다는 선행연구(송인숙, 1991; 김혜정, 1995)와 일맥상통한다.

## 2) 하위영역별 가계의 재정문제 인지도에 미치는 변인 <표 5>

소득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편의 직업 중 사무직( $\beta=.14$ ), 가계총자산액( $\beta=-.19$ ), 가계총부채액( $\beta=.12$ ), 물질주의성향( $\beta=.24$ ), 자원적정감( $\beta=-.20$ )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0%였다.

지출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부연령 중 30대( $\beta=.24$ )와 40대( $\beta=.40$ )로 나타났는데 역시 40대 주부는 중년기 가계에 해당되므로 지출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직업 중 사무직( $\beta=.12$ ), 가계총자산액( $\beta=-.12$ ), 물질주의성향( $\beta=.26$ ), 자원적정감( $\beta=-.35$ )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36%였다.

자산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부의 연령 중 40대( $\beta=.19$ ) 남편의 직업 중 사무직( $\beta=.10$ ), 가계총자산액( $\beta=-.12$ ), 물질주의성향( $\beta=.16$ ), 자원적정감( $\beta=-.30$ )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1%였다.

부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부의 연령 중 30대( $\beta=.20$ ), 40대( $\beta=.25$ ), 가계총자산액( $\beta=-.17$ ), 가계총부채액( $\beta=.17$ ), 운명통제지향성( $\beta=-.13$ ), 물질주의성향( $\beta=.10$ ), 자원적정감( $\beta=-.23$ )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4%였다.

노후·긴급자금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부의 연령 중 40대( $\beta=.23$ ), 남편직업 중 사무직( $\beta=.17$ ), 가계총자산액( $\beta=-.22$ ), 운명통제지향성( $\beta=-.10$ ), 물질주의성향( $\beta=.22$ ), 자원적정감( $\beta=-.19$ )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6%였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모든 하위영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계총자산액, 물질주의성향, 자원적정감 등이다. 즉 가계총자산액이 적을수록, 물질주의성향이 강할수록 자원적정감을 낮게 인지할수록 가계의 재정문제를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재정문제인지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은 41%이며, 하위영역별 재정문제인지도를 종속변수로 했을 때, 가장 설명력이 높은 영역은 지출문제영역(36%)이며, 다음으로는 노후·긴급자금문제(26%), 부채문제(24%), 자산문제(21%), 소득문제(20%)의 순이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계를 담당하는 주부의 재정문제인지도와 그 영향변인의 분석을 통해 재무관리교육프로그램의 구성과 더 나아가 재무서비스체계의 방향설정 등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도시 주부의 가계 재정문제인지도는 자산문제를 가장 높게 인지하고 있었고, 소득문제, 노후·긴급자금문제, 지출문제 순으로 낮아졌으며, 부채문제를 가장 낮게 인지하고 있었다. 도시 주부들이 5개의 하위영역 중에서 부채문제를 가장 낮게 인지하고 있지만, 자산문제를 높게 인지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아직까지 부채가 경제적 필요나 궁핍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또한 자산증대 수단이나 높은 수준의 지출을 위한 수단으로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생애주기에 걸쳐 가계의 자산과 부채 포트폴리오에 극복할 수 없는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될 때 가계는 심각한 재정문제를 경험하게 되므로 재정문제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부채관리가 재무관리교육프로그램의 구성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표 5〉 가계의 재정문제인지도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 변인	종속 변인		소득문제		지출문제		자산문제		부채문제		노후·긴급 자금문제		전체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객관적 변인														
주부의연령 (20대)														
: 30대	0.13	0.08	0.35	0.24**	0.17	0.12	0.40	0.20*	0.22	1.22	0.32	0.25**		
40대	0.27	0.16	0.58	0.40***	0.29	0.19**	0.51	0.25**	0.41	0.23*	0.32	0.36***		
50대이상	0.20	0.05	0.24	0.08	0.24	0.07	0.29	0.07	0.39	0.10	0.34	0.12		
주부취업여부	-0.13	-0.08	-0.11	-0.07	-0.13	-0.08	0.08	0.04	-0.06	-0.04	-0.02	-0.05		
남편학력	-0.00	-0.00	-0.03	-0.09	0.00	0.00	0.00	0.01	-0.00	-0.01	-0.01	-0.06		
남편직업 (전문·관리직)														
:사무직	0.23	0.14*	0.22	0.12*	0.15	0.10*	-0.03	-0.01	0.30	0.17*	0.19	0.15*		
생산서비스직	0.11	0.05	0.03	0.02	0.21	0.10	0.05	0.02	0.22	0.10	0.12	0.07		
무직/미취업	0.72	0.09	0.45	0.07	0.55	0.08	0.69	0.07	0.48	0.06	0.56	0.10		
가계총자산액	-0.00	-0.19**	-0.00	-0.12*	-0.00	-0.12*	-0.00	-0.17**	-0.00	-0.22***	-0.00	-0.20***		
가계총부채액	0.00	0.12*	0.00	0.11	0.00	0.06	0.00	0.17**	0.00	0.09	0.00	0.14**		
주관적변인														
운명통제지향성	0.05	0.04	-0.01	-0.01	-0.01	-0.00	-0.19	-0.13*	-0.12	-0.10*	-0.07	-0.08		
물질주의성향	0.30	0.24***	0.28	0.26***	0.18	0.16*	0.15	0.10*	0.30	0.22***	0.24	0.24***		
자원적정감	-0.25	-0.20**	-0.38	-0.35***	-0.34	-0.30***	-0.34	-0.23***	-0.25	-0.19***	-0.33	-0.33***		
상수	2.54		3.46		3.44		3.56		3.05		3.37			
F-value	4.701***		10.148***		5.031***		5.845***		6.393***		11.978***			
R <sup>2</sup>	0.20		0.36		0.21		0.24		0.26		0.41			

\* p<.05 \*\*p<.01 \*\*\* p<.001 #남편학력은 연속변인으로 다시 만들었음.

# 가변인 준거집단: 주부의 연령(20대) 주부직업여부(전업주부) 남편직업(전문,관리직)

둘째, 도시 주부의 가계 재정문제인지도는 주부의 연령, 남편의 학력, 남편의 직업, 자산유무, 부채유무, 운명통제지향성, 물질주의성향, 자원적정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주부의 연령이 20대 보다 40대 주부가 재정문제인지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주택확장과 자녀교육 및 자녀 결혼 그리고 자녀 결혼 이후 안정기반 마련, 여유 자금의 부족 등을 경험하는 중년기 가계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특히 중년기 가계의 경우 자신의 노년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할 때 40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재무관리교육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민간단체 그리고 구청 등을 통해서라도 가계의 재무관리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겠고, 가정학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셋째, 모든 하위영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계총자산액, 물질주의성향, 자원적정감 등으로, 주관적인 변인이 점차 중요해짐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재정문제라고 하면 소득·지출 등의 객관

적인 경제적 자원상태에 관심을 두고 연구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주관적인 변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다.

부연하면 자원적정감과 물질주의성향 같은 주관적 변인이 재정문제인지지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계의 재무관리교육 프로그램에 주부들의 가치지향성에 관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가정학자들은 지금까지 재정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떻게 지출을 합리적으로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고 교육해 왔다면 앞으로는 주부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가계의 재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재정관리 및 재무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에 대한 제언을 들면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인 연구를 하였지만, 가계의 재정문제라는 것이 오랜 기간동안 누적 또는 장기화된 성격을 갖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고려한 종단적인 연구도 이루어짐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가계 재정문제인지지도에 대한 결과로 재무교육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가계의 재정문제인지지도와 재무교육프로그램의 요구도를 같이 연구함으로써 가계의 재무교육프로그램 구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김경숙(1993). 취업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행동유형에 관한 체계론적 분석.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 2) 김민정(1984). 가계소득 적정도 인지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3) 김순미a(1993). 가계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재무서비스 체계의 이론적 검토. 대한가정학회지 31(3), pp.89-100.
- 4) 김순미b(1993). 도시 가계의 재정상태, 재무관리 및 재정적 만족의 관계분석:체계론적 적용가능성 검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pp.195-207.
- 5) 김영숙(1983). 장기 생활설계를 위한 가계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pp.59-73.
- 6) 김혜정(1995). 주부의 화폐관리 전략과 재정만족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7) 문숙재·김순미(1997).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가족생활주기적 관점의 재정복지실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5), pp.1-15.
- 8) 문숙재·김순미·양정선(1996). 가계의 부채보유 여부 및 부채액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pp.157-169.
- 9) 박선옥(1996). 가계재정관리 유형에 따른 재정문제와 그 대처방안.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10) 서병숙·소연경(1992). 신가정경제학, 서울 : 수 학사.
- 11) 성영애·양세정(1995). 가계의 부채부담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pp.207-219
- 12) 송인숙(1991). 도시 주부의 강박적 구매행동 및 그 관련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29(2), pp.263-274.
- 13) 심 영(1993). 가계부채가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4(2), pp.29-50.
- 14) 윤정혜(1986). 도시 저소득층 소비자의 경제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2).
- 15) 임 정(1988). 주부의 가계복지 인지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16) 임정빈·고보선(1992). 가정경제 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의 질만족- 도시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pp.191-208.
- 17) 이기영외(1998). 생활설계론, 서울:교문사.
- 18) 이기춘(1985). 신정 가정경제학, 서울 :교문사.
- 19) 이기춘(1991). 가정경제학-가계행동의 분석과 이해, 서울:교문사.
- 20) 정선희(1987). 도시주부의 재정문제 인지정도 와 그 해결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21) 정선희·오정옥(1991). 가계의 재정불일치 및 관련변인에 관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pp.19-35.

- 22) 통계청(1995). 한국의 사회지표.
- 23) 홍향숙(1989).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소비 생활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24) 황덕순(1995). 도시 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대처 행동.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 25) Hayes, D.(1987). Incoorporating credit in demand analysis. *Proceedings of American Council on Cosumer Interests*, pp.109-115.
- 26) Herendeen,J.(1974). The role of credit in the theory of the household, *Journal of Consumer Affairs*, 8(2)pp.157-181.
- 27) Fitzsimmons, C. & Williams,F.(1974). The family economy,Edwards Brothers, Inc., AnnArbor Michigan, 1974.
- 28) Varcoe, K.P.,(1990) "Financial events and coping strategies of household",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4, pp.57-69
- 29) Williams, F.L., Nall, M. & Deck, P.Z.(1976). Financial problems of urban families. *Home Economics Reserch Journal*, 4(3), pp.185-196.
- 30) Zinka, K. & Buckner, W.(1989). Financial problems of consumerm an urban enviornment.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The Proceedings*.172.